

어떻게 치료하나요?

- 섬망의 원인을 찾아내고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.
- 급성 증상/상태 완화를 위해 약물치료 시행합니다.

환자와의 대화

(가족들이 도와 줄 수 있어요)

- ✓ 환자의 심리상태(초조, 의심, 불안, 판단력/지각 왜곡 등)를 이해하면서 공감적으로 질문하고 격려해 주기
- ✓ 시야가 가려지지 않게 하고 환자를 만지기 전에 알려 주기
- ✓ 행동이나 말을 제한하는 것 대신 이야기 화제 전환하기



어떻게 치료하나요?

환경 치료(가족들이 도와 줄 수 있어요)



불안을 제거하고 친근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

- 조용한 분위기에서 잘 정돈된 침대와 친근한 사물 배치(가족사진, 좋아하는 이불/베개 등)
- 가족과 함께 있도록 하기, 과잉자극제한 (TV 끄기, 은은한 조명, 익숙한 사람들 등)
- 일관된 방법으로 환자 대하기



지남력 및 감각, 인지를 향상시키는 환경을 제공합니다.

- 지남력 반복훈련(환자에게 오늘 날짜, 상황을 알려주어 현 상황을 파악하도록 해주기)
- 시계와 달력 보이게 하기
- 야간엔 간접조명 적용하기
환자가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배려하기
- 낮에는 커튼을 걷어 놓고 밤에만 닫기
- 낮잠시간 최소화하기
- 감각손실을 줄이기 위해 안경, 보청기, 의자 사용하기



안전한 환경 제공합니다. 낙상주의!!

-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상 난간을 올려주기
- 화장실을 갈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기
- 항상 보호자가 함께있기
- 낙상 위험이 있을시,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낙상패드 적용하기



섬망 알아보기



섬망은 무엇인가요?

- 섬망이란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정신과적 증상입니다.
- 원인으로는(뇌질환, 감염, 전해질 불균형 및 탈수, 약물 부작용, 전신상태 저하 등이 있습니다.

치매와 구별법

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‘**지속성**’입니다.

- **섬망**은 수일 이내 급격히 발생하여 원인이 교정되면 수일 이내 호전되고 하루 중에도 증상의 변동이 심합니다.
- **치매**는 수개월에 걸쳐 생기고 증상이 비교적 큰 변동 없이, 일정합니다.

진단은 어떻게 하나요?

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한 증상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.

- 증상 발생 시점과 증상의 변화 양상 등을 통해 진단 합니다.
- 필요한 경우 혈액검사, 요검사 및 CT, MRI, 뇌척수액 검사, 뇌파검사 등을 시행합니다.



어떤 증상이 생기나요?

증상은 하루 중에 변동이 심하며 주로 밤에 심해지고 낮 동안에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.

※ **섬망이 나타나기 전 수일 전부터 전조 증상(불안, 불면, 일시적 환각, 졸림)이 나타날 때는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!**

• 수면장애

주로 밤에 불면 증상 보입니다.

• 환시

커튼이나 벽에 있는 옷을 보고 “도둑이다.” 혹은 “저기 누가 있다.”라고 하며 무서워 합니다.

• 지남력 저하

날짜 개념이 없어지고, 가까운 가족이나 의료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있는 곳이 병원인지 집인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.

• 의식장애, 집중력 저하

어떤 일을 시켜도 집중하지 못합니다.

• 사고장애

비논리적인 사고, 피해망상, 의심 등을 흔히 보이며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“자신을 죽이려고 한다.”, “독극물을 주사한다.”는 등의 피해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.

• 정신운동장애

과다 각성, 초조, 과민성, 산만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, 반대로 각성저하, 혼동, 진정 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

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충동적인 돌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.